

LA 대형 산불 시내쪽으로 확산...돌풍 강해져 긴장 고조

사망자 최소 11명·건물 1만2천여채 소실...도심 초토화 대형 화재 2건 진압률 10%대...소화전 고갈 등에 비판론 현재 서울시 1/4 크기 면적 태워...경제적 타격 88조 손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초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현지시간) LA 카운티 동부 내륙의 '이튼 산불' 지역 알타데나의 주택가는 그야말로 '초토화' 된 화재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당국은 연방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형 화재의 진화율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다. 다소 수그러들었던 바람이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진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해낸 펠리세이즈 산불, 방향 틀어 내륙 쪽으로...대피구역 확대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부 해변의 부촌 피스픽 펠리세이즈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 피해 면적이 87.4km로, 24시간 전보다 4.7km가량 더 커졌다.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피해 지역도 57.1km로, 하루 전보다 1.7km가량 더 늘었다.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하면 156.3km로, 서울시 면적(605.2km)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크기다.

수천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펠리세이즈 산불이 11%, 이튼 산불이 15%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해변의 펠리세이즈 산불이 이날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번지면서 내륙의 주요 시설을 위협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LA의 손꼽히는 명소인 게티미 술관이 대피 대상 구역에 포함돼 상주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했다.

소방관들은 게티미술관과 가까운 산자락의 맨더빌캐니언에서 불길의 산비

탈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할리우드 스타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기상청은 LA 일대에서 바람이 다시 강해져 최대 풍속이 시속 75-80km에 이를 것으로 경고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피해 규모 점점 불어나...'물 부족' 방치한 당국에 비판 목소리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LA 카운티 검사관실에 따르면 펠리세이즈 산불로 5명, 이튼 산불로 6명 등 이번 사태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수색견들을 동원해 피해 지역 수색을 정밀하게 진행함에 따라 확인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는 최소 13명으로 추정된다.

불탄 건물은 현재 이튼 산불 지역에

서 7천여채,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 5천300여채 등 총 1만2천3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LA 카운티 내 주민 15만3천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16만6천명에게는 인제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대피 경고'가 발령됐다.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물부족과 현재 LA 카운티 내 4만7천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당국의 화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의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총 600억달러(약 88조4천160억원)를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中 “티베트 잔해 깔린 아이’ 사진은 AI합성...유포자 체포”

중네티즌들 올린 어린이 사진...중대 재난시 정보 전파 신중해야

중국을 울렸던 티베트 강진 잔해에 깔린 어린이의 사진이 인공지능(AI) 합성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진을 합성한 네티즌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2일 전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르카췌(시가체)시 딩르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후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털모자를 쓴 어린이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듯한 모습이 다수 공유됐다.

공유된 게시물에서 네티즌들은 “너 무가했다”, “이 사진 한장이 나를 울게 한다”, “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 사진은 조화수를 노린 AI 합성이었다는 것이 중국 경찰의 결론이다.

CCTV는 “사진에 명확한 AI 생성 흔적이 존재한다”며 “공안기관 인터넷 안전 부문은 신속하게 조사를 벌였다. 이(어린이) 이미지 원작자는 지난해 11월18일 동일한 화면을 담은 숏폼(짧은 동영상)을 배포했는데, 지진과는 관련이 없고 AI로 생성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경찰은 중국 서부 칭하이성에 사는 한 네티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어린이 사진과 르카췌 지진 정보를 엮어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행정구류 조치했다. 중국 당국은 잔해에 깔린 어린이 사진 외에도 수백 건에 달하는 ‘지진 관련 루머’가 나돌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AI·가짜뉴스 단속 계기로 삼은 모양새다.

르카췌 경찰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AI가 생성한 지진 잔해 속 어린이 모습.

어를 통해 발표한 ‘이 같은 인터넷 허위 정보를 경계한다’는 글에서 과거 지진 현장 사진을 이번 지진에 관련된 것처럼 만든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휘청대는 영상 등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물 가운데 ‘가짜’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정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CCTV는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말라. 유언비어를 만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중대한 재난·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높이고 정보전파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日이시바,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조율

일본 외무상, 트럼프 취임식 참석 미 고위관료 만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전반 미국을 방문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관계는 우리나라(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일미 양국 협력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도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인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는 일본 각료로는 처음으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주미 일본대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이와야 외무상의 취임식 참석은 이례적이라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관료와 면담을 추진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